

주간기도정보

2025. 2. 1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돌봄·섬김에 집중된 이주민 사역, 목회·양육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아시아미션, 제3회 이주민 사역자 포럼 개최



국내에서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120여 명의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역 방향과 비전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 지원단체인 아시아미션(AM·대표 이상준 선교사)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평창 켄싱턴호텔에서 제3회 이주민 사역자 포럼을 개최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사역자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콘서트부터 사역자들의 정서 및 영적 상태를 진단하며 회복을 추구하는 ‘디브리핑’ 프로그램, 사역별(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모임 등이 진행됐다.

특히 한국 이주민 사역이 3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이주민들의 대량 유입이 지속될 것에 대비, 이주민 사역의 향후 35년 방향을 논의하고, 재한 이주민 사역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전국에 흩어진 이주민 사역자들은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특별히 이주민 사역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상준 대표는 “지난 이주민 사역이 나그네 신분인 이주민에 대한 돌봄과 섬김이었다면, 앞으로는 같이 사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목양하는 사역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주민 사역자들은 타문화 선교사임에도 선교계의 사각지대에서 고군분투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선교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역자들에 대한 디브리핑, 멤버케어, 재교육 등을 받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일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복음을 알게 된 뒤 목회자가 돼 한국에서 몽골제자교회를 세운 현지인 바야르마 목사의 간증도 이어졌다. 튀르키예 선교로 헌신한 후 한국에 돌아와서 이주민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김종일 선교사(안디옥교회)의 나눔은 한국으로 철수하는 해외 선교사들의 다음 사역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이상준 대표는 개회 예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잠깐 잃어버렸던 일화를 나누며 “이주민 사역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이주민 섬김에 파묻혀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사역한 건 아닌지 돌아보자”고 권면했다.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이주민 사역자 포럼은 3회째를 맞이했다. 먼저 지난 30년간 이주민 사역이 나그네 신분인 이주민에 대한 ‘돌봄과 섬김’이었다면, 이후에는 함께 사는 이주민들의 ‘목회와 양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논의했다(출처: 국민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로마서 16:25-27)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브리서 6:10)

하나님, 선교계의 사각지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국내 이주민 선교에 사명을 받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섬긴 사역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주민 사역자 포럼을 통해 돌봄과 섬김을 너머 목회와 양육으로 나아가 고자 하는 이들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게 생명이 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의 모든 이주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들로 믿어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무관심이 아닌 이웃이요 형제 됨을 인정하며 사랑의 섬김과 구령의 열정으로 통로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견고케 하사 모든 민족에게 예수생명이 흘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니라”

영하 30도 가까운 맹추위에 땀감 부족까지...주민 고통 가중

코로나19 이후로 주민 의식주 해결 막막...허기와 추위 시달리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어



북한 양강도 북부 지역에 최저기온이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는 맹추위가 이어 지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해산시에는 대한(大寒)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파가 이어져 기온이 영하 3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면서 “지금 땀감이 부족한 많은 세대들이 추위에 덜덜 떨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의 많은 세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에 필요한 땀감을 충분히 확보해 두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세대들은 땀감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 차디찬 방에서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식통은 “경제력이 없는 세대들은 땀감 부족으로 아침에 밥을 지을 때만 잠깐 불을 피우고는 그 열기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그래서 일부 세대들은 오물장을 뒤져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주워다가 태우는가 하면 낮에도 집안의 모든 이불을 겹겹이 깔고 덮고 옷도 두세 겹씩 끼입으며 추위를 겨우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들어 해산시에서는 대설과 한파에 굴뚝이 얼어붙은 세대들에서 연탄가스 중독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3일 해산시 해성동의 한 인민반에서는 가족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 한 주민을 통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다.

땀감 없이 겨울을 버티던 이 가족은 어렵게 동네 이웃에게서 연탄을 구해 땀는데, 오랫동안 불을 제대로 피우지 못해 굴뚝이 퐁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피면서 연탄가스가 실내로 역류해 화를 당했다는 전언이다.

가뜩이나 생계난을 겪는 상황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하루 1,000-2,000원(한화 약 40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데 쌀 가격은 과거보다 3,000원 이상 올랐고 난방용 땀감 가격도 두 배 이상 올랐다”고 말했다.

실제 10일 기준 해산시장의 쌀 1kg 가격은 8,300원, 난방용 땀감은 1m³에 29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약 4,000원, 13만 원 정도 오른 가격이다. 소식통은 “어려운 세대들이 취사용으로 사용하던 착화탄마저 가격이 급등해 1장당 500원에서 800원이 올라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취사용 연료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난방용 땀감을 마련하기는 더욱 힘든 상황이지 않겠나”라고 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식의주(의식주) 문제에서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허기와 추위에 시달리는 여기(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출처: 데일리NK 종합).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마태복음 26:26)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유다서 1:20-21)

하나님, 북한의 많은 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며 땀감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 찾아온 맹추위로 고통하는 소식에 주의 공활을 구합니다. 주의 손길로 돌보사 만물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얼어붙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또한 영혼에 가장 필요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와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일에 증인 된 북한 성도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여 생명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영생을 얻어 주님을 찬송하는 하늘 백성 되게 하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악한 자들은 속이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혁명 교육에 국가 재정 이용하는 유네스코법 개정안 반대

유네스코 교육, 성혁명 추구로 자녀들 영혼·육체 파괴 우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3일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진평연, 북음법률가회 등 506개 교계 및 시민단체 연합이 동참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이 겉으로는 선진국형 교육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혁명 교육으로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유네스코법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적 성혁명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이러한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유네스코법 개정안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예산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해 “연간 200억 이상의 엄청난 재정을 조달하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중복지원”이라고 말했다.

또 “이에 더해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신설,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유네스코 교육 핵심 기관인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했는데, 범위와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예산 지원으로 이어져 세금 부담과 지자체 재정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둘째로 “유네스코는 일반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운영 경비 90% 이상을 교육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며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새로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로 교육 분야에 대한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들은 “유네스코 교육 방향과 내용은 2021년 발표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에 소개돼 있는데, 이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조항 곳곳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 등을 정당화하는 포괄적 성교육, 성평등, 성인지 교육 등이 포함돼 있고, 성적지향과 젠더정체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내용도 있다”고 개탄했다.

또 “개정안은 포괄적 성혁명 교육 사업을 더 확대하고 보다 적극 시행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네스코 교육 실체가 자녀들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할 망국적 성혁명 교육이라는 점을 부모와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3-15)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21)

하나님, 선진국형 교육으로 위장하여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며, 가정과 나라를 훼파할 유네스코법에 결단코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 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은 이때, 고상한 학문이라는 가면 뒤에서 어린 영혼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사탄의 간계가 십자가에서 이미 파하여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부모세대가 일어나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로 싸우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다음세대가 성경으로 양육 받아 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세속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은혜에 굳게 선 세대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성혁명으로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복음의 증인들로 일어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